

서재응 “무조건 10승”

연봉 4천만원 삭감 2억9000만원 사인



미국 전지훈련중인 서재응이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 텍사스 레인저스 볼파크에서 러닝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서재응이 2억9000만원에 연봉 재계약을 끝냈다. 서재응은 26일 지난 시즌 3억3000만원에서 4000만원 삭감된(12.1%) 2억9000만원에 연봉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KIA는 2012시즌 연봉 재계약 대상자 55명 중 52명과 재계약(재계약율 95%)을 마쳤다. 서재응은 지난 시즌 4.28의 방어율로 8승9패를 기록하는데 그쳤지만 볼펜의 위기 상황에서 임시 마무리 투수로 뛰면서 2홀드 2세이브를 기록했다.

**KIA, 한기주·이용규 연봉 협상 진통
잠적소동 최희섭은 구단에 백지위임**

또 윤석민과 로페즈에 이어 팀 세 번째로 많은 이닝(130과3분의1이닝)을 소화하면서 고참 역할을 수행했다. 연봉삭감을 놓고 협상이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서재응이 4000만원 삭감안을 받아들여면서 재계약이 마무리됐다. 10승 달성을 목표로 내건 서재응은 “아쉬움이 있지만 흥분한 마음으로 훈련에 집중할 생각이다”며 “팀 성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할 것이다. 팀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개인 성적은 자연스럽게 따라 올 것이다”고 말했다. 서재응의 계약이 마무리됐지만 KIA는 한기주·이용규와의 연봉 협상을 남겨두고 있다. 한기주는 2년 연속 삭감 대상자가 되면서 구단과 각을 세우고 있고, 지난해 전지훈련 직전 극적으로 도장을 찍었던 이용규도 다시 한번 연봉 협상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한편 또 다른 미계약자인 최희섭은 잠적 소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구단에 연봉을 백지위임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애리조나의 호랑이들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전훈 시설·날씨 만족

KIA 타이거즈가 미국 애리조나에서 V11을 위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최상의 운동시설, 최적의 날씨, 화기에애한 분위기까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는 것이 선수단의 반응이다. 대표팀 동기, 군대동기, 학교동문 등이 알뜰살뜰 짝을 이뤄 애리조나의 밤을 보내면서 속소 분위기도 좋다. 선수들에게 지급된 숙박은 단 하나, 20번째 시즌을 앞두고 있는 최고급 이종범에게만 숙박이 배정됐다. 투수 최고참이자 팀의 넘버 2인 유동훈도 2인실 생활을 하고 있다.

유동훈의 룸메이트는 14살 차이가 나는 좌완 심동섭이다. 심동섭은 시즌 중에도 유동훈의 ‘방골’로 활동했다. 에이스 윤석민은 국가대표 동기인 양현종과 한방을 이뤘다. 2살 터울의 젊은 선수들로 룸메이트가 구성되면서 윤석민의 방은 심동섭·홍건희 등 막내급 투수들의 아지트가 되고 있다. 투수 임준혁과 진해수는 군대 동기. 지난해 가을까지 상무에서 한술밥을 먹었던 두 선수는 이번 캠프에서도 한 이불을 덮고 있다. 오랜 룸메이트인 이현근과 안치홍도 변함없이 한방을 구성했다. 후배들 잘 챙기기로 유명한 서재응은 인하대 동문인 오준영과 한방을 쓰고 있다.

나지안·홍재호, 이범호·신종길 커플은 2살의 나이 차이가 있지만 평소에도 친구같이 지내는 ‘절친’. 선배가 룸메이트 우선 선택권을 행사한 경우도 있다. 이용규는 캠프 출발 전부터 일제강점기 고졸 2년차 정상교를 룸메이트로 낙점했다. 역시 2년차 투수 이정훈도 한기주의 선택을 받으면서 방골 역할을 하고 있다. 최고령 방골은 박기남이 차지했다. 방장 차일목과 박기남은 81년생 동갑. 하지만 차일목이 빠른 81로 입단이 1년 빠르다. “마음 맞는 사람과 한방을 쓰는 게 편하다”는 박기남은 기꺼이 방골 역할을 하면서 애리조나의 밤을 보내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뉴캄프에서 열린 국왕컵 8강 2차전에서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오른쪽)와 레알 마드리드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메시·호날두 ‘맞수 영웅전’ 무승부

**바르샤 VS 레알 ‘엘 클라시코’ 2대2
1차전 승리 바르샤 국왕컵 4강 진출**

스페인 프로축구의 ‘명가’ 바르셀로나가 올해 두 번째 ‘엘 클라시코’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제압하고 2011-2012 국왕컵(코파 델 레이) 4강에 진출했다. 바르셀로나는 25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뉴캄프에서 레알 마드리드와의 국왕컵 8강 2차전에서 전반 43분 페드로의 선제골과 전반 인저리 타임 다니 알베스의 추가골로 2-0으로 앞서다 후반 23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후반 27분 카를 벤제

마에게 연속골을 내줘 2-2로 비겼다. 이로써 1차전에서 2-1로 이긴 바르셀로나는 1, 2차전 합계 4-3으로 지난해 우승팀인 레알 마드리드를 제치고 준결승에 진출. 통산 26번째 우승을 노릴 수 있게 됐다. 특히 바르셀로나의 ‘마라도나의 재림’ 리오넬 메시는 페드로의 결승골을 배달해 1차전에 이어 2경기 연속 도움 활약을 기록했다. 2경기 연속골을 터트린 레알 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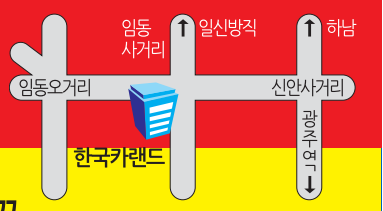
리드의 ‘골잡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의 자존심 경쟁에서도 판정승을 거뒀다. 이날 무승부로 바르셀로나는 1902년부터 시작된 레알 마드리드와의 ‘엘 클라시코’에서 통산 전적 86승46무86패로 평행선을 이어가게 됐다. 더불어 바르셀로나의 호셉 과르디올라 감독은 2008년 부임 이후 레알 마드리드와의 역대전적을 10승3무1패로 만들었다.

2경기 연속골을 터트린 레알 마드

/연합뉴스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일일신협 조합원의 집)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랜드가 하는 일: 루마썬팅, 3M코팅, 모비스썬팅,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클리닝, 허버언더코팅,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샤크안테나, 자동차경비일체, 빔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비뒀방울, 천장방울, HID램프, LED램프, 모비스순정용품, 키약세서리 일체, 이차기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전국 최저가 판매** ■ 국내 최대 500평 매장 ■ 주차장 700평 주차격정 끝

아이나비 | 만도네비 | 모비스네비

▶ 거치형 본인 네비 매립 전자종 17만원 ⇒ 12만원
 ▶ 아이나비KL100, 3D(8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50만원
 ▶ 아이나비ES500, 2D(4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47만원
 ▶ 만도정품MD300, 2D(4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45만원
 ▶ 만도지니 J7, 2D(4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48만원 ⇒ 40만원
 ▶ 모비스폰토스 PU-7, 3D+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60만원 ⇒ 52만원
 ▶ 모비스폰토스 K-7, 2D+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45만원
 ▶ 트립형 매립차량은 상담후결정

트립 이동형 장착 모습 | 매립장착모형 | 전자종기능

블랙박스 | 후방카메라 | 샤크안테나

만도 블랙박스 BN100

대한민국 대표 후방카메라 시그널 후방카메라

샤크안테나 및 통합안테나

- ▶ 본인네비 매립 = 17만원 ⇒ 12만원
- ▶ 후방카메라 = 15만원 ⇒ 9만원
- ▶ 샤크안테나 = 10만원 ⇒ 6만원
- ▶ 만도블랙박스 8기가 전, 후방 = 35만원 ⇒ 30만원
- ▶ 모비스블랙박스 4기가 전방 = 22만원 ⇒ 19만원
- ▶ 모비스블랙박스 8기가 전, 후방 = 37만원 ⇒ 33만원

도난경보기 | 이자카 | 스타트버튼

최고 추가부품(옵션) 차량은 금액이 추가 될수 있음 *차량용 고급합수 2만원 상당 무료증정

- ▶ E770B 40만원
- ▶ E7-S 43만원 / E7-B 51만원
- ▶ E7 37만원
- ▶ E7 17만원
- ▶ E75500 25만원
- ▶ E1 7만원
- ▶ EZ620 10~14만원